

한 해를 보내며



다사다난했던 2003년이 저물어 가고 희망찬 2004년이 다가오고 있다.

올 한 해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시간이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신성장 동력을 선정하여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이에 힘을 더해주는 듯 지난 9월 IT 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가 늘어난 50억3000만 달러, 수입은 29억1000만 달러로 21억2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점차 분위기도 호전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세계적으로는 제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IPv6 보급 계획과 IT 핵심부품의 집중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등 'U-코리아'로 자리매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협회에서도 올 한 해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다양한 사업과 폭 넓은 민·관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인력 양성 및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잡페어와 취업 교류회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연초 모바일 시대를 선도하는 「LBS산업 협의회 창립 총회 및 기금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난 2월 성장 가능성이 높은 IT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IT신산업 육성과 벤처 정책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3월에는 점차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정보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모럴 헤저드의 각성을 촉구하는 「정보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공동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4월에는 「정보통신산업 주요정책 및 IT분야 대표기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부 각 부처와 기간 통신사업자들의 사업 정책에 대한 비전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모시고 「정보통신 포럼」을 개최하는 등 회원사들의 사업 모색을 위해 노력했다.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인 「국제정보통신 및 이동통신(EXPO COMM WIRELESS KOREA) 2003 전시회/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정보통신 기술 동향 및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 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리눅스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리눅스 설명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Linux Expo Korea 2003」을 열어 업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꾸준한 관심을 이끌어 냈다.

협회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 IT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정보통신기업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IT산업의 글로벌화에 발 맞추어 2003년 한 해는 많은 외국 IT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이 협회를 방문했다.

지난 2월에는 중국신식사업부 차관이 방한하여 협회와 「한·중 IT협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3월에는 일본 자위대 간부들이 협회를 방문하여 국내 IT현황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4월에는 중국 하북성 IT대표단과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심양지회 관계자들의 방문과 대련시 IT 대표단의 방문에 이어 대련 정보산업국과 함께 「대련 · 서울 IT CEO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후 미국 FCC 관계자들과 이라크 통상장관, 중국 산둥성 IT방문단 등도 협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협회도 지난 5월 일본 큐슈 지방에서 「ASP 보급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련 국제 IT전시회를 통해 한 · 중 IT기업설명회를 갖는 등 해외진출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새 천년 정보통신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멀티미디어 기술대상」도 역시 계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술에 대한 관심과 발전상을 적극 반영한 「모바일 기술 대상」을 통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업체를 수상했다.

정부와 업계의 상호간 대화의 장으로서의 「정보통신포럼」은 업계의 의견이 정부의 정책 수립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창업 붐 조성과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는 올해 5회째를 맞아 날로 뛰어난 기술 아이디어가 채택되며, 우수 벤처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지난 4월 「정보통신 벤처창업 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갖고 대회 수상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기로 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본 협회 부설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 인터넷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터넷 인증시험」과 「리눅스 마스터」, 「무선인터넷관리사」시험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갈수록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한 인재 선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 · 일 JOB FAIR」를 개최하는 한편 「사이버 채용박람회」나 「취업 정보관」을 운영하는 등 실업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2004년은 국내 IT산업이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산 · 학 · 연 · 관이 힘을 모은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의 성장 · 발전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방하는 한편 적극적인 실천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협회도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대표 협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는 정보력과 보다 다양한 대 회원사 서비스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는 한편 회원사의 이익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물심양면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 주었던 회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건승하시길 기원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정 장 호